

KCCC 미주 한인 대학생들 13국에 복음 전해

1,711명 예수 영접, 495명 지역교회로 연결

한국대학생선교회 미주지구(KCCC USA) 대학생 329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전세계로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달이 넘는 시간 동안 몽고, 터키, 그리스, 동아시아,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멕시코 등 13개 나라에 파송돼 선교활동을 펼쳤다.

선교회에 따르면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총 6588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1711명이 예수를 영접했으며, 495명의 학생을 성경공부와 지역 교회로 연계했다.

이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KCCC USA의 선교 훈련 과정을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했고, 팀을 조직해 각 나라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을 세웠다.

특히 한류문화의 도움을 받아 K팝 댄

스, 태권도, 부채춤 등 다양한 문화사역을 통한 접촉도 이루어졌다.

또 Friends Night(친구초청) 시간을 통해 학생들을 초청, 한국 음식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선교에서 두드러진 약진은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에게도 선교의 기회가 주어져 이들도 활발하게 선교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총 75명의 멕시코 팀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치과 의료봉사, VBS, 고아원 사역, 집 보수공사와 페인트 등 지역 주민을 돕는 일과 사역을 병행했다.

High KCCC를 담당하고 있는 헤세드리 간사는 "10여 개의 LA 지역교회와 연계된 이번 멕시코 선교에서는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한 팀을 이뤄 낮에는 한 마음으로 선교 봉사에 참여했으며 저녁에는 집회에 참석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국팀 친구초청의날 행사에 많은 태국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다.

선교회 관계자는 "이번 단기 선교는 육체적 봉사와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바로 잡고, 선교

사역의 팀워크를 배우고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오는 8월 29일 오후 6시에는 이번 단기 선교에 참가한 학생들이 LA

체육관에서 선교지에서 겪은 다양하고 은혜로운 체험들을 나눌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커뮤니티 임팩 네트워크' 출범

KCCD주최 AARP후원, 이민교회와 미주류단체의 네트워크



미국 내 한인 사회와 미국 시민 기업 및 지역 사회 단체의 연결을 돕는 '커뮤니티 임팩 네트워크'(Community Impact Network) 행사가 한인기독교

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임혜빈 회장) 및 남가주교회 주최로 16일 저녁에 아르마일센터에서 열렸다.

'커뮤니티 임팩 네트워크' 출범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캘리포니아주와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미국인노년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AARP는 에이팩(AIPAC,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 위원회) 조직과 더불어 미국 내 가장 큰 조직으로 회원 수가 3700만명에 달한다. 이 조직은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의 권리를 대변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혜빈 회장은 "KCCD는 교회 및 지역사회의 교차로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와 사회 지도자들의 네트워크를 해나갈 때 최선을 다하겠다"며 "커뮤니티 임팩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모임에 많은 잠재적 파트너와 후원자를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가주교회 회장 변영의 목사는 "남가주에는 1500여개의 이민교회가 있다. 미국사회로부터 도움 받을 것이 너무 많은데, AARP의 많은 정보를 교회에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데이빗 김(AARP 부회장), 케이티 허닝(AARP 캘리포니아 주립 감독) 등이 참석해 조직을 소개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KCCD는 비영리 기독교 단체들이 미국 주류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료 주택구입 상담 프로그램과 크레딧 상담 및 교정 프로그램,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주택구입 일대일 상담, 주택차입 방지 세미나, 차입 방지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다음 주는 정기휴간입니다

Inspire 여름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북한,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어린이들 돕기 위해



설운도 씨와 Sarah Chung.

2012 Inspire 여름 자선 콘서트가 18일 오후 6시 30분에 LA사랑의교회에서 개최됐다.

MusA Academy가 주최한 이 공연은 클래식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클래식 음악가와 한국의 중견 예술가들이 힘을 모아 북한,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최 측은 "행사 수익금 전액은 이들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설운도 씨는 '별', '누이', '추억속으

로', '삼바의여인', '다함께차차차', '사랑의트위스트메들리' 등을 피로연스와 함께 선보였으며, Piano Trio(피아노-김지현, 바이올린-Fay Kim, 콘트라베이스-전수경)가 'LIBERTANGO', 'B Rossette', 'Blessed Assurance'를, Sophia Bouhaddou 씨가 'Rolling in the Deep'를, Seunghee Rhee 씨가 'Because You Loved Me'를, Sophia Bouhaddou 씨와 Seunghee Rhee 씨가 듀엣으로 'If I ain't got you'를, Jin Soo Kim Band가 'Mourning into Dancing', 'Chameleon'을, Sarah Chung 씨가 '나 가져든'을, Sarah Chung 씨와 MusA Teen Choir이 'Nella Fantasia'를, 그리고 모든 참여자가 'You raise me up'을 불렀다.

이날 교회 분당을 가득 채운 관객은 출연진들의 공연에 감동하며 감격의 박수를 보냈다. 토마스 맹 기자

라이프 섹션

13면 복새통

- » 신간소개 | 한 백성, 단순하게 설교하라, 기쁨 섬김 그 비결
- » 강진웅의 책 읽기 |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가

16면 헬스 & 라이프

마늘과 올리브 오일이 만났을 때...

17면 커버스토리

남자의 로망, 수트에도 철학이 있다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AX 문제 전문
 자산동결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CC Choi, E.A.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UBM SCHOOL 2012 가을학기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모집
 여호수아와 다니엘 같은 자녀 세대의 부활을 위한 Christian 대안학교

미국에서 40여년간 교회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C.E (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서 배우는 모든과목을 이수하며 개인의 능력과 학습수준에 따른 "개인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묵상, 예배, 성경공부, 성경암송을 통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미국 공립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교적 교육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나아가서 거룩하고 구별된 세대를 양육하고자 세워진 학교입니다. 또한, 유치원은 풍부하고 다양한 몬테소리교구로 오감각 훈련과 창의력, 집중력, 독립심을 발달시키는 몬테소리교육을, ACE교육과 병행하므로써 **인성, 지성, 영성**을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임을 알려드립니다.

입학날짜: 2012년 9월 11일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9월 8일 토 6:00 pm
대상: Kindergarten ~ 12th
장소: 14415 Imperial Hwy, Whittier, CA 90604
문의: 949-233-4216 (cell), 562-903-2600 (office)

www.ubmchurch.com **UBM교회**

남가주동신교회, 5배 넓어진 예배 처소로

손병렬 목사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왼쪽부터 남가주동신교회 새성전 위원장 정하석 장로, 손병렬 담임목사, 김태우 목사, 김명수 전도사.

극심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성전 이전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플러튼에 위치한 남가주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다. 이 교회는 지난 7월 중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배 처소에서 3분 정도 떨어진 미대형교회 이스트사이드크리스천교회 건물 매입을 위한 에스 크로를 종결하고 오는 10월 말 예정대로 이전한다.

새 예배 처소의 규모는 총 부지 면적 8.2에이커에 이른다. 종전 부지 면적이 1.8에이커이므로, 5배 가량 넓어지는 셈

이다. 수용 인원은 1천석이다. 이뿐만 아니라 부설 유치원과 부설 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3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 4채도 교회 부동산에 포함돼 있다.

현 남가주동신교회 건물은 중국계 교회인 세리토스제일복음교회의 지교회 가 매입기로 결정됐다.

손병렬 목사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며 “새 성전 이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이 결정되고 1년

8개월 동안 온 교인들이 하나되어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면서 “그간 교회 내 큰 갈등 없이 뜻을 하나로 모아준 당회원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성전 이전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남가주동신교회 측은 “(성전 이전은) 우리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닌,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 세계 선교, 그리고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매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한나 기자

“광복의 감격, 자자손손으로 이어져야”

남가주교협 광복 67주년 기념 연합감사예배 드려



광복 67주년을 맞아 나성순복음 교회에서 연합감사예배를 드렸다.

“우리 선조들이 누렸던 그 날의 감격은 점점 사라져가는 산속에 메아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날의 감격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복 67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7시 30분에 남가주교협이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연합감사예배를 드린 가운데 회장 변영익 목사는 “그날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변 목사는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 기도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제 67회 광복절을 맞이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감격과 함께 기억되어야 할 광복절의 의미가 세월이 지나며 잊혀져가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는지 알아야 한다”라며 “그들은 3천5백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의 감격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며 철저히 지키는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변 목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됨은 하나님과 선조들 앞에 매우 아름다운 일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할 가치있는 일”이라

고 강조했다.

미주 광복회 고문 김성훈 목사는 “우리 조국은 잿더미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군인들과 젊은이들, 국민 모두가 합심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 경제대국을 이뤘다”며 “우리의 소원은 평화 속 조국통일이기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가면 행복의 나라가 영원토록 임할 것”이라고 축사했다.

3.1여성동지회 박은숙 회장은 축사를 통해 “67년 전 광복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했다.

특히 이날 △조국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미국의 신앙부흥과 지도자들을 위해 △이민교회의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해 각각 이정현 목사(교협 부회장), 박종대 목사(교협 증경회장), 강홍순 목사(교협 부회장)의 인도 하에 합심기도가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사회 진유철 목사(교협 수석부회장), 기도 홍순현 장로(남가주장로협의회 회장), 성경봉독 정종일 목사(교협 서기), 찬양 나성순복음교회 찬양대, 설교 변영익 목사, 헌금기도 홍성관 목사(교협 회계), 특별찬양 글로리아찬양대, 광고 박세현 목사(교협 총무), 축도 정해진 목사(교협증경회장회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토마스 멩 기자

한인입양아 돕기 자선 음악회 수익금 전달

LA코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측 한국 입양홍보회에 1만8천불 기부



왼쪽 앞줄부터 오셀 오 사무총장, LAKPO 피터 황보 이사장, MPAK 스티븐 모리스 대표, 윤임상 상임지휘자

LA코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LAKPO·피터 황보 이사장)가 지난 7월 말 성황리 개최한 ‘한인입양아 돕기 자

선음악회’ 수익금 1만8천5백불을 한국 입양홍보회(MPAK)에 기부했다.

이에 MPAK 스티븐 모리스 대표는

13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음악회를 통해 입양에 관심 있는 한인들의 문의 전화가 크게 늘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밝힌 다음 “(기부금을) 한인가정 입양아를 위한 장학금 및 MPAK 입양사역에 귀히 쓰겠다”고 밝혔다.

LAKPO 측은 “자선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한인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입양 고아들에게 사랑을 찾아주는 MPAK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스티븐 모리스 MAPK 대표를 비롯, LAKPO 조민구 초대지휘자, 피터 황보 이사장, 오셀 오 사무총장, 윤임상 상임지휘자가 참석했다.

정한나 기자

남가주동신교회 동신장학금 수여식



제 9회 장학금 수여식을 마친 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기념촬영했다.

남가주동신교회(손병렬 목사)는 지난 19일 창립 34주년을 맞아 제 9회 동신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교회는 매년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을 모집, 지역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타민족에게도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타민족을 비롯 지역학생 31명에게 각각 1천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정한나 기자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 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항암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www.GoSmartworld.com 건강용품 전문점! 스마트 월드

로데오 갤러리아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 323.454.7872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사랑받는 명품!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세계 최고 전신안마기 KN7005R

반값 특가세일 \$3,900 +Tax 3년 워런티 24개월 / 12개월 무이자 플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실리콘! 자동차 핸들 커버

TOURMALINE + ALPHA 세계최초 특허품

- 장거리 운전중 피곤하신 분
- 어깨나 팔이 아프신분
-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 분
-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 분
-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 분

강력한 음이온 원적외선 발생

\$30 +Tax

박희민 목사가 말하는 책과 설교

독서 통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과 판단력 길러야

옛 선진들 가운데 책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공자는 '공부'를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자는 공부란 닦이 알을 풀는 것과 같다고 했고, 율곡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연암은, 선비가 독서를 하면 그 은혜가 천하에 미친다고 했다.

독서의 중요성은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성영락교회 원로이자 남가주 교계 영적 거장인 박희민 목사는 말한다.

“독서는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는 식견과 판단력을 길러 주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해 준다”고. 그래서 설교자는 독서를 통해 끊임 없이 정신세계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목회자라면 신학 서적도 많이 읽어야겠지만, 영성을 비롯 리더쉽과 치유, 회복, 가정 사역 등 실제 목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나가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기본적인 신학 정립은 물론이거니와 신앙 생활의 성숙과 도움을 주는 바른 독서가 필요하다는 지론이다. 지식 편향의 ‘머리만 큰’ 이 지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보다는, 균형있는 신앙의 회복과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위해 책을 읽자는 주장이다.

미국의 평론가이자 시인이요, 철학자인 R. W. 에머슨은 “보기 드문 지식인을 만났을 때 그가 무슨 책을 읽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물어봤다. 박 목사에게 가장 영향을 준 책은 무엇이었는지. 그는 성숙한 신자를 만드는 지적이면서도 영적인 지침서로 잘 알려진 리처드 포스트 박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을 첫째로 꼽았다.

“어려선 교전을 많이 읽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다. 또한 그가 집필한 <돈, 섹스, 권력>도 추천하고픈 책이다.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돈과 성,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세속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많이들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이 3가지는 크리스천들이 하루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 3가지 면에 있어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 실제로 적용시켜 나가느냐가 성공적인 신앙 생활의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저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는 새벽기도를 마친 뒤 2시간은 조용히 독서에 집중한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기 좋기 때문이다. 바쁜 와중에도 그는 부교역자들에게 독서의 유익함을 일깨워 주교자 교역자 회의 때 꼭 40분을 할애해서 독서보고 시간을 마련했다. 자신이 읽은 책 내용을 3-4페이지

로 요약한 다음 자신의 신학적 입장에서 비평을 하는 식이다. 더 나아가 개인의 신앙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나눈다.

박 목사는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목회자들에게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깊이, 말씀의 실력이 중요하다”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하지만, 그것을 오늘의 문화 상황에서 재해석하는 설교학적 관점에서의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설교를 전달하는 기술과 설교를 빛나게 하는 영적인 자세, 그리고 설교로 일컫던 교회 부흥 등 설교에 관한 한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면 과찬일까. 많은 후배 목회자들은 그에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묻곤 한다. 박 목사가 말하는 설교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들여보자.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라

주일설교를 할 때 먼저는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그러면 평소에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던 것이 반복해 읽는 가운데 영감이 떠오른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영어 성경은 물론 한국어 성경도 여러 버전을 비교해 가며 읽는다. 본문에 대한 뚜렷한 의미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문만 읽지 말고 앞뒤 문맥 속에서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자 애쓴다.



박희민 목사. 그는 독서의 유익을 일깨워 주교자 교역자 회의 시간에 독서보고 시간을 마련했다.

▷주석책은 나중에... 체크업이 목적

설교 준비할 때 처음부터 주석책을 보면 그 내용이 내 생각을 압도해 버리게 된다. 그래서 설교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서 본다. 혹시 내가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 너무 빛나거나 안 되니까. 간혹 주석책을 읽다 보면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줄 때가 있기도 하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성령의 영감을 구하라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설교 정립이 잘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눈을 주신다.

▷구체적인 적용에 노력한다

한국인들의 설교는 미국인들의 그것에 비해 추상적인 원론에서 그칠 때가 많다. 미국인들은 말씀을 사회와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 생활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끌어주는 데 비해 한국인들은 '사랑합니다!' 같은 구호로 끝날 때가 많다. 설교 준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적용까지 해 줄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한나 기자

박희민 목사 기고 <통일과 북한선교>

이제는 통일 시대를 대비할 때이다

올해로 8.15 광복 67주년을 맞이했다. 남북한은 67년간 분단의 아픔과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과 아픔은 분단의 고통에 기인한다. 따라서 통일과 민족의 화해 문제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필자는 지난 6월 하순에 한국에서 개최된 북한포럼과 통일심포지엄에 참석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현재 남한 내 탈북자 수는 2만 4천 여명에 이르며 탈북자 목회자도 100명이 넘는다. 탈북자 교회도 상당수 세워졌으며 통일시대를 대비해 그들을 지도자로 교육하는 기관도 생겼다. 그러나 언제 통일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에 대한 사회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의 예측도 빛나 갖듯 남북통일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필자는 남한이나 이민사회가 통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

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북한선교포럼과 통일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은 변한 것이 없다. 반미 적화통일운동이라는 원칙은 권력을 세습 받은 김정일이 권력 유지를 위해 오히려 더 강화했다.

그러나 북한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체제로 돌아 서면서 북한은 더욱 고립됐다. 90년대부터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북한은 원하던 원치 않든 변화를 겪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자연히 정치, 사회와 인간관계도 변한다. 돈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특히 배급제도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빈부 격차가 생기면서 모두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됐다. 1990년까지만 해도 이윤 추구를 위한 장사를 상상할 수 없던 북한 사회였지만 지금은 장사가 보편화 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

렀다. 의사나 교사도 이윤 추구에 열중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현재 북한 경제는 중국에 70-80%를 의존한다. 남북한 무역거래는 10억-20억 달러 정도였는데 최근 한국과 거래가 중단되면서 북중거래는 50-60억 달러로 증가했다.

북한사회 저변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외부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집트 이동통신회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다는 사실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예고한다. 한국드라마도 인기라고 한다. 2010년에 북한 시장에서 잘 팔린 상품으로 송이버섯, 꽃게, 휴대전화, 여성 반지, 돼지고기, 신라면, 생맥주, 신권에 이어 한국 드라마가 이름을 올렸다. 김정일이 인기를 얻기 위해 여성들에게 하이힐과 바지 착용을 허락한 후 여성들의 패션도 바뀌었다. 사치품의 하나로 취급되는 생수도 많이 팔려 2011년에는 품귀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택배사업도 등장해 이제는 움직이면 먹고 살수 있다는 말이 돈다고 한다. 쌀, 채소, 곡식 등 자판 장사도 유행이다. 놀이공원은 낮에는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텅 비고 저녁에만 운영한다고 한다. 놀이공원 또는 수영장 입장권이 암매장에서 거래될 정도로 돈 있는 사람들은 여가문화를 즐긴다.

개성공단에서 간식용으로 주는 초코파이는 전부 시장으로 유출된다고 한다. 직공들의 월급이 사천원에서 육천원인데 반해 한 달 동안 받은 초코파이를 팔면 칠만 오천원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성 공단에 한 사람이 취직되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돌이 일하면 돈을 저축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상류층에서는 커피믹스가 인기다. 손님에게 대접하는 커피믹스로 만든 커피 한 잔은 부와 신분을 나타낸다. 북경 북한대사관 앞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이 한국산 커피믹스라고 한다. 북한 주민들이 소니보다 삼성

을 선호하며 USB도 인기라고 한다. 한국드라마를 유통하는 조직적인 유통망도 있다고 한다.

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병을 찾으러 분대장이 신의주 근처에 갔다가 오려려 사병과 가족에게 설득되어 단동으로 탈북했다는 이야기는 북한사회의 무질서와 변화를 말해준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8억 달러가 드는데 북한정부는 백성은 굶어 죽어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 북한은 돈벌이를 위해 수 만 명의 인력을 중국에 파견하기로 중국과 협약했다.

해방 70주년을 기념해 온민족의 소원인 통일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 가야 할 때다. 이 일을 위해 교회가 앞장 서서 대비해야 한다. 외형적 통일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남북한 사람 간의 긴밀한 통합은 새로운 세대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지(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키퍼미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약도 Bus 2071 Lajolla Fairfax ORT 메트로 Wilshire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시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기주교회협의회, 남기주한인목사회, 남기주 효호예지부, 벨렐장로교회, 엘에이사랑교회, Horizon신학교, 기독교보, 한술종합보험, 크리스찬헤럴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최천욱변호사, 재미남기주향해도모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T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운 CPA**

Tel (213)387-2004
Email 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2012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 8월 27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여 형편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턴)

교회 단신

동부교회 한국학교 모집
LA지역 동부장로교회(4270 W. 6th St.)가 한국학교를 열고 학생을 모집한다. 2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 문화,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며, 점심숙 교육심리학 박사가 교장을 맡는다. 8월18일부터 12월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12시30분에 수업을 실시하며 가방, 교재, 간식비 10 달러를 제외한 수업료는 무료다.
문의: 213-383-3261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9월 10일~9월 12일까지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요 목사)가 '제14차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를 연다.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목사), 홍인기 목사(호산나교회), 고현권 목사(어바인베델한인교회) 등이 강의한다. 목사와 장로를 대상으로 선착순 12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60 달러다.
김한요 목사는 이 컨퍼런스에 대해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본질에 단순하면서 핵심을 전하는 컨퍼런스"라고 소개했다.

유럽성시화 미주 대표단 참가자 모집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유럽 성시화 미주 대표단 참가자를 모집한다.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탐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7개 국을 12박 13일(10월 1일~10월 13일)동안 탐방하는 A팀(비용: 2,800 달러)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 4개 국을 6박 7일 동안 탐방하는 B팀(비용: 2,100 달러) 등을 모집한다. 미주 지역 목회자나 평신도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문의: 213-384-5232

행복한 부부 세미나
ANC온누리교회는 '제4차 행복한 부부 세미나'를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다. 세미나 장소는 퍼시픽 팜 컨퍼런스 리조트이며 유진숙 목사, 유미은 사모, 강승철 목사, 강혜경 목사가 강의한다.

주님의영광교회 일본어 동시통역개설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가 19일부터 일본어 동시통역과 일본어부를 개설했다.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30분 2부예배 시간에 일본어 동시통역이 있으며, 예배 후 일본어부 목장으로 일본인들과 교제가 진행된다.
교회 관계자는 "이 일은 LA지역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일본인, 일본사람과 결혼한 분들을 위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 평일에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회와 성경공부를 열어 일본선교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과 일본인들이 함께 모여 일본교회를 네트워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일은 일본에서 다년간 일본교회 목회를 한 바 있고, 미주일본인선교훈련원 원장으로 있는 좌영진 목사가 담당한다. 좌 목사는 "앞으로 9월 4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주님의영광교회 호프센터에서 일본어 성경공부와 일본인 선교를 위한 지속적인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213-379-6506(좌영진 목사) 213-748-4500(교회)

성경적 갈등해결법 배워 피스메이커 되자

플러튼 뉴라이프선교교회서 9월 6일부터 5주 동안 제 2기 세미나 열려



갈등에 대해 빠르게 이해하고, 본인의 갈등 반응 유형을 살피며, 성경적인 해결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박영배 목사는 "갈등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지적한다. 갈등을 보는 관점을 달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 '가서 화해하라'는 갈등해결의 원리에 따라 삶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론을 풀어내갈 예정이다.

박 목사가 피스메이커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교단 총회에서 표출된 분쟁 상황을 목도하면서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 그는 "갈등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운다면 갈등에 대한 회피 및 공격 반응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동의하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의 다양성을 기뻐하고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뿌리를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9월 6일부터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등록비는 10불. 여성들을 위한 피스메이커 세미나도 9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문의: 714- 526-6562, 714-351-7608
정하나 기자

“방주교실 통해 알찬 방학 보내 감사하다”

은혜의방주교회 제 6차 방주교실 발표회 열려



은혜의방주교회에서는 제 6차 방주교실 발표회를 열어 학부모와 가족들을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방주교실을 통해 무료로 여름방학동안 2세들에게 썸머캠프를 개최해온 은혜의방주교회(김동일 목사)가 지난 8월의 첫날 저녁 7시 30분에 제6차 방주교실 발표회를 열어 학부모와 가족들이 대거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발표회는 두명의 자원봉사 선생님이 사회를 봤고, 첫번째 순서로 동요 '아이들은' 외 2곡을 선보였다. 또 핸드벨, 바디워킹, 플룻연주, 리코더연주, 클라리넷연주, 바이올린연주, 고학년들의 난타연주로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이 외에도 소감시간에 8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방주교실을 통해서 알찬 방학을 보내게 되서 감사하다.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었다"며 "우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설교시간에는 김동일 목사가 "부모들은 아이들을 통해서 웃음을 얻는다"며 "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다. 방주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조금이나마 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9시 한미교육원에서 미주3.1여성동지회 태극기 교실에서 방주교실 난타팀이 공연을 하기도 했다. 또한 주최측은 오는 9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게 될 LA사랑나눔기 5킬로 마라톤에 '방주교실'을 통해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라톤 참가비는 방주교실로 도네이션 된다.
문의: 213-200-4624
토마스 맹 기자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747-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747-5900
714-743-1000

1230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이 사람] 북한말 성경 번역하는 김경신 교수를 만나다

영화 <크로싱>에 나오는, 천장에 숨겨진 성경책을 기억하는가. 북한말 신약 성경 '새누리성경'이 바로 이것이다. 모퉁이돌선교회 김경신 교수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오랜 수고와 헌신의 결정체로 2005년 완성 출간된 이 새누리성경은 현재 북한에 밀반입되고 있다. 그간 북한에 있는 비밀지하교인들에게 20여만 권에 달하는 새누리성경이 북한에 전달됐다. 작년 한 해에만 5만여 권이 보내졌다.

새누리성경이 나오기까지 그는 하루 꼬박 10시간씩 의자에 앉아 성경 원문과 씨름했다. 자그만치 12년간을 그렇게 버텼다. 7년간 신약 번역 작업에 이어 현재 5년째 구약 성경 본문을 다듬는 작업에 한창인 그의 책상 위엔 큼지막한 히브리어 성경이 펼쳐져 있다. 검은 빨테 안경을 눌러쓰고 그는 오늘도 원문에 충실한 표현을 찾아내기까지 몇 번이고 헬라어·히브리어 사전을 뒤적이며 또 뒤적이다. 지난 16일 모퉁이돌선교회 김경신 교수를 만났다.

"하루 10시간씩 12년간 의자에 앉아 버텼어요. 그리고도 아직 허리가 꺾이지 않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은총이죠."

올해로 그의 나이 예순 세 살.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얗게 보이는 흰 머리카락이 자연스러운 연륜이다. 나지막한 목소리에 온화하고 인자한 생김새가 영락없는 학자 스타일이다. 색깔로 치자면, '순결·고상함·정령함·예의바름' 등을 상징하는 흰색에 가까운 인상을 지녔다거나 할까. 하나님의 말씀, 즉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진의에 다가가고자 애쓰고 고심한 흔적이 그의 미간에 잡힌 주름살에서도 묻어난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을 졸업하고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신학을 전공했다. 이후 40대 초반까지 대신대학교(현 안양대학 전신)를 비롯한 여러 강단에서 10여년간 신약을 가르쳤다. 도미 후엔 잠시 목회를 하다 모퉁이돌선교회와 인연을 맺고 12년째 북한말 성경 번역 작업을 해오고 있다. 故 최의원 박사(종신대 교수, 기독교신학원 원장)와 주영흠 박사(건국대 교수, 원어 성경 연구자)가 그의 스승이다. 최 박사

하루 꼬박 10시간 앉아 12년째 투쟁 허리 꺾이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총

로부터 히브리어 성경 읽기를, 주 박사로부터 헬라어 신약 읽기를 배우고 훈련 받았고, 풀러신학교의 김세운 교수 등을 통해 학문적 세계를 익혔다.

언뜻 생각해 봐도 쉽지 않을 터. 12년간 10시간씩 의자에 앉아 원문과 씨름한다는 게. 솔직히 처음엔 그도 북한말 번역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니 회의도 들었다. 물론 난관도 많았다. 하지만 모퉁이돌선교회 이사 회장과 이반석 총장의 전폭적인 후원과 지속적인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북한 교인들이 새누리성경을 받아 읽고 눈물 젖은 편지를 보내왔을 때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북한의 한 성도는 "북한에 있는 우리들을 남한의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면서 "남한에서 보면 북한의 문화와 언어는 사투리고 거친 표현이 많은 텐데, 우리(북한) 문화를 존중해서

북한말 성경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전해 왔다. 또 다른 한 성도는 "북한 방식의 표기법(표현)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보다 이해하기가 쉽고 읽기 편하다. 하나님 말씀의 감동이 더 빨리 이뤄져서 좋았다"고 했다.

이렇게 보내온 편지는 한두 통이 아니다. 벽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북한 성도들이 반응을 보내왔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구나' 느끼게 됐다. 아무리

고된 작업일지라도, 대상으로부터의 반응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보람과 만족을 주었다. 앞으로 언젠가 평양에서 성경을 강의하는 게 소원이란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는 일도 그의 기도 제목 중 하나다. 다음은 북한말 성경 번역과 관련, 그와 나눈 일문일답.

- 북한말 성경 번역을 하는 이유?

"북한 내 새롭게 등장한 젊은 세대는 기존의 공산주의 체제와 전혀 다른 사상 체제를 갖고 있다. 특히 언어와 문화면에 있어 기존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을 위한 성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그 필요성을 15년 전부터 느끼고 북한말 성경 번역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사회 자체가 변해서 젊은 세대들은 개역개정판이나 옛날에 번역된 구어체 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번역 중인 김경신 교수

휘둘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너무 많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표현을 예로 들어보자. 북한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신성 모독이다. 원수는 김일성 원수한 분이다. 남한에선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하는데, 북한에선 전혀 다르다. 그렇다고 '원수'라고 하자니, 너무 거칠고 극단적인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를 '네 대적을 사랑하라'고 번역했다.

마태복음 1장 18절(개역 개정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수령 중심의 북한 체제에서 '(인류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나셨다'고 표현하는 건 지도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아주 낮은 표현이다. '나셨다'보다는 '탄생하셨다'고 해야 의미가 제대로 통한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는 구절도 그렇다. 남한에선 미혼남녀가 한집에서 사는 것을 '동거'라고 한다며, 북한에선 전혀 다른 뜻이 된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살림을 차렸다'고 번역했다. 또 최고지도자의 부인이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또는 '임태'했다고 해도 안 된다. 절대 지존이므로 '회임하셨다'는 극존칭 단어를 써야 한다. 그래서 '회임된 것이 드러났다'고 번역했다."

- 북한말을 잘 알아야 번역할 수 있지 않나?

북한말 신약 새누리성경 출간에 이어 5년째 구약 본문 다듬는 작업 중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을 비롯해 여러 세대가 우릴 도와주고 있다. 탈북자 2만여 명 중에 목사가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들의 자문을 받아 교정보고 수정하고 있다. 신약의 경우 1년 넘었 그들의 피드백을 받았다."

- 번역의 메카니즘은 어떻게 되나?

"원문에서 직접 번역 작업을 하되 그동안 번역된 여러 역본들을 참고로 계속 하고 있다. 우리말 성경이 첫째는 영어 번역에서 중국어 번역, 그리고 한글 번역을 거쳤는데 거기에 일본어의 영향도 있다. 기본 방침은 이러한 외래어 문화 세례를 받은 요소들을 걷어낸다는 데 있다."

한 예로, 구약에 나오는 '구빗(cubit)' 같은 도량형은 영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 번 변화가 일어났다. 원래 히브리어는 '암마(ammah)'다. 그래서 새누리성경에선 '암마'라고 그대로 썼다.

이런 식으로 영어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 문화에 맞도록 다듬어 편집했는데, 이것을 다 원문 중심으로 돌려 놓았다. 그리고 중국말 표현이 거친 표현이 많고 우리 문화와 간격이 있어 이해 안 되는 게 많다.

예를 들어 성경에 '실만히 행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높은 분 앞에서 거들먹거리거나 감히 우쭐거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젊은 세대까지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 고유한 방식으로 바꿨다."

-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나

"구약의 전통 히브리어는 사어(死語)이기에 뜻을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심지어 사전을 편찬하신 분들도 서로 견해가 다를 때가 나온다. 그래서 암중모색(暗中摸索)일 때가 많다. (참고로 현대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복원된 히브리어다.) 이런 경우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해야 하는데, 한 단어를 놓고 저마다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 학자는 이렇게 보는 반면 저 학자는 다르게 보는 경우, 대략 난감하다. 여기에 성경 번역의 어려움이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신·구약성경이 하나의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본이 여러 개로 갈라져 있고, 또 한 사본 내에서도 단어가 서로 다르게 쓰인 '이독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하니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굉장하 까다롭다. 의자에 앉아 하루에 10시간씩 버티는 것 자체가 투쟁 중의 투쟁이다."

- 이 번역 작업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정하나 기자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에 나 자신이 발견한다는 데 제일 큰 의미가 있다. 또 원문 읽기를 해나가다 새롭게 발견된 성경 의미를 다른 이들에게 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보람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현재 진행중인 번역 작업은 대강 어떤 방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나?

"크게 다음의 3가지 방침을 따른다. 첫째, 앞으로 통일 시대를 내다보고 남북한이 함께 읽을 수 있는 통일 성경을 만드는 것이다. 가장 '저렴할 성경'이라 이름 붙이려 한다. 거레가 함께 볼 수 있는 성경이란 의미다."

두 번째는,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바르고, 쉽고,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서 원문을 정확하게 풀이하고, 또 알기 쉬운 문장을 만들어 전하는 데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1백년 동안은 거레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래가는 성경을 만들되 해외 교포들도 읽기 쉽게 편집을 잘 다듬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정확하게 원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이다."

- 새누리성경은 현재 어느 정도 북한에 전해졌나?

"2005년 이래 지금까지 20만권 정도가 들어갔다. 우리를 돕는 분들도 많이 잡혀서 죽었다. 우리가 작업한 성경은, 작은 사이즈로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손 안의 성경'이다. 성경 소지에 위력이 따르는 만큼 휴대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보낸 성경을 읽고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다. 탈북자들은 남한에 온지 3년이 지나면 '남한화(化)'되어 현지 언어 감각을 많이 잃어버린다. 그래서 현지 지하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큰 도움이 된다."

- 이 일을 방해하려는 세력도 있을텐데

"우리 사역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이념 대립 구도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 전달에만 모든 초점을 맞춰서 일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고정관념을 갖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북한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배후 세력의 조정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은 비폭력·비이념이고, 철저히 복음중심적이고 평화적이다. 우리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TOP MEDIA
교회학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2012 PEACEMAKER SCHOOL
피스메이커 학교
제2기 피스메이커 세미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화평케하는 자

■ **강사** : 박영배 목사 (Peacemaker Ministry 전문강사)

■ **주제** : 1. 피스메이커 Peacemaker
2.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Glorify God
3. 네 눈속의 들보를 빼라 Get The Log Out of Your Eye
4. 온유한으로 바로잡으라 Gently Restore
5. 가서 화해하라 Go and Be Reconciled

피스메이커 학교
일시 : (5주간)
9월 6, 13, 20, 27일
10월 4일(목) 오후 7:30

수요 여성 피스메이커 세미나
일시 : (5주간)
9월 5, 12, 19, 26일
10월 3일(수) 오전 9:30

등록마감 : 2012년 9월 6일까지 남여 30명
문의 : 조철수 목사 (714-526-6562 / 714-351-7608)
등록비 : \$10 (교재비, 간식비)

예배 및 성경공부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08:15 (한어예배)
주 일 2부 예배 오전 10:00 (영어예배)
주 일 3부 예배 오전 11:45 (한어예배)
주 일 성경공부 오전 09:45
화~금 새벽예배 오전 05:30
토요 새벽예배 오전 06:00
금요 찬양예배 오후 7:30

담임목사: 박영배
Tel. 714-526-6562 www.newlifemissionchurch.com
1430 E.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1

New Life Mission Church
New Life Mission Church
뉴라이프 선교교회

열정과 젊음의 도가니... '코스타 코리아' 현장을 가다

그들은 궁금했다, 性, 사명, 그리고 삶이...

“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입으로는 늘 믿는다고 하지만 늘 내 발은 죄를 짓기에 빠르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100일 남았다. 그런데 여기 왔다. 난 절박하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요...”

“주변에 동성애자 친구들이 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솔직히 어렵다.”

청년들은 멘토들을 향해 거침없이 질문들을 쏟아냈다. 장내는 진지했고 수많은 눈들은 멘토들의 입으로 집중됐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요즘... 그러나 이날 이곳에서만만큼 한국교회의 미래, 희망차고 밝았다.

‘2012 코스타 코리아’ 집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기자가 찾은 날은 16일, 집회가 한창 클라이막스로 향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채플관은 2천여 청년들로 가득했고, 그들이 뿜어낸 뜨거움은 캠퍼스 전체를 덮고도 남았다.

선택강의 시간에 청년들은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궁금증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나를 괴롭히는 이 죄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같이 심각하고 또 간절한 것들이었다.

고직환 선교사(코스타 코리아 공동대표), 김명현 교수(전 한동대 교수), 박수광 목사(코스타 국제본부 상임대표), 이재원 교수(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이선일 원장(울산소방정형외과), 저마다의 경험과 신앙이 녹아든 이들 멘토들의 대

답은 후배들의 귀와 마음에 닿아 고민의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갔다.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들어왔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 카이스트 출신인 김명현 교수는 “입시를 앞두고 기도했다. 10년 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달라고. 하지만 그 후론 상황에 따라 그냥 살았다”며 “대학엘 가야 해서 갔고, 공부를 해야 해서 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다 대학원에서 창조과학을 공부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기도한 후 정확히 10년 만이었다. 나 자신도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 해야겠다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며 “그게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남들은 다 구원받았다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그런데 난 아니다.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신념도 약하다. 유혹엔 넘어지기 일쑤다... 질문을 하던 한 청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가만히 들던 고직환 선교사가 말한다.

“혹 어느 집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믿는 이가 있는가? 아마 그 확신,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거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팩트가 중요하다. 말씀 속에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팩트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야 한다. 성경을 좀 더 많이 배우고 그와 관련된 콘텐츠들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접하라.”



‘2012 코스타 코리아’의 선택강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질문들을 자유롭게 털어놓았다.

지금 내 손에는 언제 어디서나 날 세상 곳곳과 이어주는 ‘스마트한’ 컴퓨터가 있다. 그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이다. 이재원 교수는 “중독의 영이 있다. 중독됐는 건 우리가 그런 중독의 영과 지금 사귀고 있다는 증거”라며 “끊어야 한다. 물론 힘들겠지만 일단 선언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라.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수광 목사는 “중독에는 영적인 차원도 있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만약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 빨리 그렇게 해야 한다”며 “영적인 것이라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 중독은 어둠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다. 어둠 안에서 그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물러난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라. 그에게 내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라. 그렇게 빛으로 나아오라”고 충고했다.

성(性) 문제는 청년들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고민이다. 물론 크리스천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동성애 친구는 어떻게 대해야 하며, 이성친구와의 스킨십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걸까.

이재원 교수는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에게 선언하라. 나는 크리스천이고 동성애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그들도 존중할 것”이라며 “동성애 역시 다른 죄와 같이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불편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조언했다.

박수광 목사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

“성경은 분명 남녀의 성적 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혼전 성관계는 분명 잘못”이라며 “쾌락에는 항상 대가가 있게 마련이다.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축복된 성을 누리게 되면 혼전 성관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된다”고 말했다.

생리학 박사인 이현일 원장도 “인체의 특징 중 하나는, 쾌락을 향해 잘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급적 남녀 둘만의 공간에선 가벼운 스킨십이라도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혼전 성관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2 코스타 코리아’에 모인 청년들의 눈엔 비록 두려움이 비쳤지만, 미래를 향한 설렘도 함께 반짝였다.

김진영 기자

9월 한 달, 한국교회 탈북난민 구원 행사 잇따라

탈북교연, 중국대사관 앞 집회 등으로 여운 환기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이하 탈북교연)이 9월 한 달간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해 국내외의 여론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탈북교연 상임회장 최병두 목사와 공동회장 겸 사무총장 김충립 박사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탈북교연은 먼저 9월 6일 서울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 도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복송 반대를 촉구하는 행사를 연다. 특히 이 행사에서는 탈북난민을 도왔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된 전재귀 목사(부산 하나로교회·예장 합동) 석방 촉구 기도회도 진행된다.

‘탈북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한 탈북수기 공모 및 시상’도 진행한다. 이는 탈북동포 학생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월 10일 모집 공고했으며 9월 15일 마감되며 9월 26일 ‘탈북난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위로잔치’에서 시상한다. 대상 1명 70만원 등 11명에게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한다.

9월 21일 오후 2시에는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탈북난민복송반대 및 기독교의 통일을 대비한 북한구원을 위한 포럼’을 연다. 이 행사는 탈북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고, 복송에 반대하며, 시대에 맞는 통일 정책 및 북한 구원 대책을 토론하는 자리다. 이해훈 의원(새누리당), 이동복 대

표(북한민주화포럼), 김석우 원장(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제성호 교수(중앙대), 고세진 박사(전 아신대 총장), 전병금 목사(강남교회),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 강명도 교수(경민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9월 26일 오후 6시에는 명성교회당에서 ‘탈북난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위로잔치’를 연다. 탈북동포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이고 위로하는 자리다. 행사 후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이다.

탈북교연은 지난 6월 26일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운동 ▲국내 거주 탈북동포 돕기운동 ▲중국 및 동남아에 피난 중인 난민 지원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구원 방안 강구 등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최병두 상임회장은 “이 단체야말로 한국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가장 힘써 해야 할 일”이라며 “전국 교회가 모여 북한구원을 위해 세운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국교회가 기대할 만한 사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충립 사무총장은 특히 9월 6일 열린 중국대사관 앞 집회에 대해 많은 참여를 요청하며 “탈북교연은 세계 교회들과 더불어 중국 정부가 복송을 중지할 때까지 매 2개월마다 첫 주 목요일 오후 12시에 이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송태근 목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영성목회연구회 수련회에서 사역자들에게 당부의 말 전해

최근 삼일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송태근 목사가 20일 영성목회연구회 수련회 개최예배 설교를 통해 목회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송태근 목사는 ‘사역자의 세 가지 준비’(딤후 2:15)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재판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을 강조했다.

이날 송태근 목사가 전한 설교의 본문인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그가 종신대 졸업 당시 존경하던 노(老) 교수가 마지막 강연에서 남긴 성구였다. 송 목사는 “교수님이 이 한 마디를 남기고 교실 문을 열고 나가셨는데, 그 깊은 울림에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못했다”며 “항상 호흡처럼 목상한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송태근 목사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에 대해 “길 한번 잘못 내면 모든 이가 다 죽을 수도 있기에, 우리가 맡은 사명은 중요하다는 정도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 대해 송 목사는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남교회에서의 목회를 회고하며 교회가 목회자를 만드는 시기와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개의 목회자들이 첫번째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단련의 과정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셋째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에 대해, 송 목사는 ‘힘쓰라’는 단어가 제사 용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제단에 바쳐진 제물처럼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송 목사는 바울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서도 주목했다. 이는 당시의 절대국가인 로마제국의 법정에서 사형을 인도받은 바울이, “그러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진정한 평가가 남아있다”고 한 것이라고 송 목사는 말했다. 송 목사는 “하나님의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쁘고 즐겁게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WCJU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랠프와 로버타 윈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31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효능 찬사 앵콜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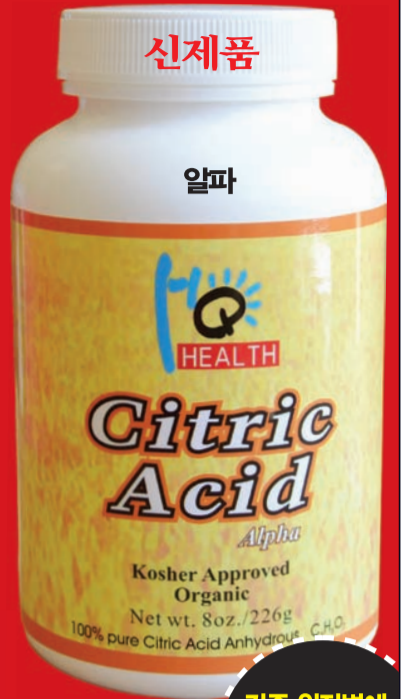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8월 31일까지)

프로모션 B (8월 31일까지)

프로모션 C (8월 31일까지)

오리지널 7병+
알파 1병 =
8병 (260불)

오리지널 4병+
알파 3병 =
7병 (270불)

오리지널 2병+
알파 4병 =
6병 (260불)

100불
(오리지널 8병도 100불)

100불

100불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5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각종 위장병에
특히 좋은
알파 구연산!!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염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성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아.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가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반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융합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BOOK



通

책으로 새로운 통하는 세상



신간 추천

한 백성

존 스토트 지음 | 정지영 옮김 | 168페이지 | 아바서원

존 스토트가 평신도와 성직자가 함께 성경적 이상을 구현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교회 역사 안에서 존재하였던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관계, 평신도를 섬기는 성직자의 올바른 방법론, 지역 교회에서 성경적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 등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 모든 신자들이 그 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임을 깨닫고, 성경적인 교회의 개념을 회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단순하게 설교하라

J.C. 라일 지음 | 장호준 옮김 | 156페이지 | 복 있는 사람

위대한 설교자 라일이 45년간 체득한 설교의 지혜와 기술을 담았다. 설교에 있어 간과되어 온 중요한 주제가 '설교의 단순성'이라고 역설하면서, 단순한 설교를 정의하고 그에 필요한 지침들을 내놓는다. 또한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설교, 회중이 듣기 쉽고 오래 기억하는 설교를 하기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간곡히 권면한다. 노(老) 설교자의 생생한 권면이 담긴, 짧지만 보석 같은 책이다.



기쁨 섬김 그 비결

김영규 지음 | 276페이지 | 콤란출판사

유럽 땅에 세워진 최초 이방인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인 빌립보서 강해집이다. 빌립보서를 통해 저자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그리고 그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의 전하고 있다. 교회에 보내는 한 사도의 서신인 빌립보서 강해는 이렇듯 교회 안과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행동할 바를 알려주는 좋은 지침으로 작용한다.



강진웅의 책 읽기

그대,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가

흔히 교회의 원조 혹은 가장 모범적인 전형으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직접 사역했던 교회,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세워진 교회, 일곱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조직을 갖추고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가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날 본받고 싶은 모델 교회라고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다.

캠퍼스 선교단체의 간사로서, 신약 학자로서, 그리고 지역 교회를 섬기다가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찾는 저자의 시각으로는 예루살렘교회로 만족할 수 없었다. 주후 30년 경에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역사속에서 사라진 예루살렘 교회로 만족할 수 없었고,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지만, 비교할 수 없이 오랜기간 생존했던 안디옥 교회에 주목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특징과 장점을 모델로 삼아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나올뎌 교회를 개척했고, 10년 동안의 실험을 통하여 세상 속에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소개할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다.



교회를 꿈꾼다 | 김형국 지음 | 포이에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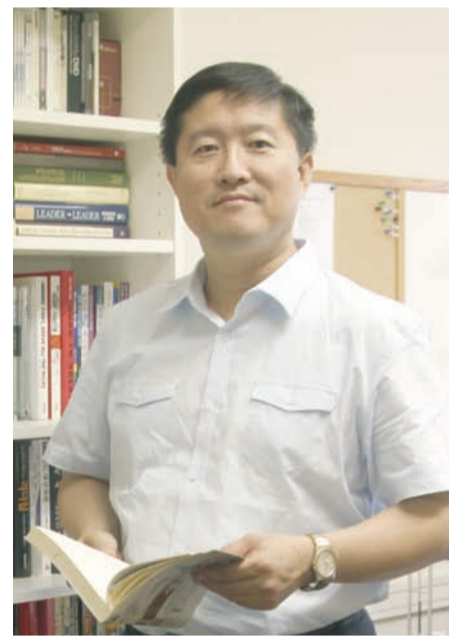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병리적 현상들을 극복할 대안도 역시 안디옥 교회의 모델에서 걸러내었다.

저자는 한국교회의 병리적 현상의 원인으로 오래된 신자 중심의 교회 운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믿음과 행위의 분리현상, 숫자, 건물, 예산 등

의 불균형적 성장주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회였으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는 진실한 공동체였음을 주목했다. 그리고 양육, 훈련, 영성, 선교에 있어서 내실 있고 균형있는 성장을 이룬 교회였으며, 안팎의 변혁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영적 능력을 가진 교회의 전형으로 보았다.

이 세상의 어느 교회라고 완벽한 교회는 없겠지만,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심층 분석한 저자의 의도는 이민교회에서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적절한 대안을 발견하게 도와준다고 믿는다.

사실상 안디옥 교회가 이민자들과 현지인들, 그리고 다양한 세계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지도자로 동역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고향 땅에서 잔류하기를 꿈꾸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보다도, 이민교회에 더 많은 영감과 도전을 주는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갈보리만음교회 강진웅 목사

오늘날 건강한 모델 교회의 실재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저자의 도전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이 책을 들고 우리 시대에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아야겠다고 마음 먹는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대신총회) 미주 총회인준 신학교(총장 강부웅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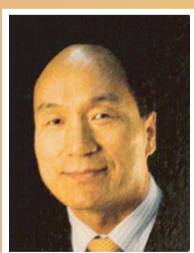
미주 대한신학교 토랜스분교 가을학기 특강



탐스톨터 박사

그레이스 신학교 B.A & M, Div
달라스 신학교 Th.M (신교학석사)
웨스턴 신학교 D, Miss(신교학 박사)
아프리카 차드(볼라카)에서 18년간 사역
그레이스 신학교 선교학 주임교수
그레이스 신학교 한국학부 부대표

Dr. Thomas M. Stallter



박시경박사

총신대학교 M, Div
플러신학교 Th, M
그레이스 신학교 D, Miss
공산권지역(형가리, 러시아)에서 15년간 사역
그레이스 신학교교수 및 한국프로그램 디렉터

통역: 박시경박사

강사 : Dr. Thomas M. Stallter

주제 : 교차문화 의사소통

내용 :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세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자신들이 전한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차문화 의사소통은 선교사들을 준비시켜서 개인의 오류나 문화적 오류를 최소화 하고, 선교지의 언어,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의미 전달을 가능케 합니다.

일시 : 2012년 9월 4일 오후 7:00

장소 : 미주 대한신학교 토랜스 분교 (사우스베이 나눔장로교회)
3521 Lomita Bl, Torrance CA 90505/ 310.404.6219

토랜스분교 가을학기 학생모집



문의 310.404.6219

· 학장 : 김영구 목사

· 교학처장 : 김상기 목사(미주총신 M, Div, Grace Theological Seminary D, Miss)

· 교수 : 이철민 목사(Bible Theological Seminary & university Ph, D, Life university Th, D 수학중)

김대우 목사 : 장로회 신학대학(한국) M, Div, Fuller seminary 선교학 Th, M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십시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기술의 발전으로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접하다 보면 탄성이 절로 납니다. 인간의 기술력이 경이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첨단 기능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전력'이라는 파워를 전제로 합니다. 이 모든 신제품들을 작동하도록 만드는 힘은 바로 '전기'입니다.

가정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아웃렛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아웃렛에 코드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제품들은 '전기'라는 동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인 우주만물을 통틀어 가장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보다 정교한 존재는 없습니다.

은 우주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고력, 창조력, 재능을 무수히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내는 존재라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될 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창조의 전제입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에 온 힘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고갈되면 역기능이 나타납니다.

몇 달전 제 노트북이 그런 역기능을 만들어 냈습니다.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의 계기판에는 전력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표시됐만, 노트북은 그 기능을 그리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컴퓨터가 쉽게 꺼지고, 데이터가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는지, 데이터의 복원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고생이 컸는지 모릅니다. 편리한 기능을 가졌기에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긴 컴퓨터는 오히려 저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끼쳤습니다. 역기능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도 순기능적 존재가 아닌 '역기능'적 존재가 되면 안됩니다. 하나

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것이 바로 순기능입니다. 우리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늘 접속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갈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역기능이 발생하게 됩니다. 순기능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한 낮 무용지물임을 인정하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 능력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우리 삶은 경이로운 결실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파킨슨병



김이주 박사
동산한의원

의 특이한 증세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옴모, 자세 및 운동에 변화가 생긴다. 걸을 때 팔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자유롭게 않고 안면은 무표정하다. 말할 때 목소리 높낮이의 변화가 아주 적고, 눈을 깜박이는 정도가 적으며 무엇을 응시하는 듯한 표정을 짓게 된다.

병이 진전되면 신체 강직이 심해져 환자가 피로를 느끼며 동통을 호소해 흔히 관절염으로 오진하기도 한다. 정신상태는 정상이지만 정서적으로 침울해진다. 또 침이나 땀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

양방에는 별로 좋은 치료법이 없으나 위생에 주의하며 자극과 흥분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따뜻한 기후, 온욕, 마사지, 가벼운 운동 등도 경직을 완화한다. 근육의 경직에는 항히스타민제, 아르탄, 비타민B6 등을 사용하게 된다.

그밖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정제를 쓰며, 정신요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효과가 있다. 양방에서는 완전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세를 가볍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분한의원에서는 오가피, 천마, 감황, 백지, 계지 등을 넣은 약재를 개발해 파킨슨병을 치료하고 있다. 이 약재는 파괴되고 손상된 뇌신경을 되살려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고 근육 마비를 치료하는 효과를 지닌다. 또한 침으로 환자의 기력을 복돋아 준다.

내가 응원한 나라는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가 언제부터 미국사람이 됐다고 미국팀을 응원하느냐! 아무리 미국시민권자라 해도 너희들 뺏속에는 감치와 된장냄새가 배어 있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른 동창이 받아 넘긴다. "너, 시민권 팔 때 뭐라고 선서했어? 미국 시민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이제는 미국편을 드는 것이 당연하지,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곧 가만히 듣고 있던 또 다른 동창이 그 짤에 끼어들었다. "이 뚱안이들아, 웃기지 마. 경기는 경기야. 거기에 무슨 애국자가 나오고 애국자가 있나? 어떻게 상대의 강한 곳을 피해서 약한 곳을 공격해서 점수를 따는 거야? '상대의 공격을 잘 받아 넘겨 그 기회를 역으로 기회로 삼아 상대를 공격하는 거야' 보며 즐기면 되지. 그것이 구경꾼의 뉘이런 말이야"하고 훈계조로 나섰다.

그 와중에 형님 노릇하는 한 동창이 무개 있는 목소리로 한 마디 툭 던진다. "너희들, 참 말을 잘한다. 틀린 말 하는 놈 하나도 없네. 다 맞는 말이다. 오늘 밥 값은 미국팀 응원한 놈들이 내라. 이겼으니, 또 한국팀 응원한 놈들은 맥주 값 내. 졌으니, 그리고 양쪽에 안 건 놈들은 팀을 내라." 그러자 각자 자기 지갑을 열었다.

미국에 오래 살았고 법적으로도 미국 시민이었던 감정이나 정서는 여전히 한국인이다. 이 나라는 다민족이 서로 협동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곳이기도 '샐러드 철학'이 더 빛을 발한다. 샐러드를 만들 때 그곳에 넣는 채소도, 그 위에 끼얹는 드레싱도 여러가지다.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지만 건 강을 챙기고 미각을 충족시킨다는 공통 목적을 지닌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피부색, 미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와 상관 없이 서로 협력해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한다. 자기의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며 자기와 다른 이민자의 전통과 특색을 인정하며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미국이다.

기적을 만드는 말



박은일 목사
시애틀평강교회

중국 진나라에 큰 공을 세운 장수에게 임금님으로부터 몇 백년 간 내려오던 국보만큼 귀한 칼이 하사되었다.

그 칼은 웅만한 쇠덩이도 단번에 잘라 버릴 수 있었고, 칼끼리 부딪치면 칼을 잘라 버리고 방패도 단번에 잘라버리는 칼이었다. 그러나 그 칼은 일반적인 칼과는 다른 사용법이 있었다. 장수는 그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섰다. 그는 당대의 가장 강한 장수인 적장을 만났다. 보검을 뽑기 전에 먼저 자신의 왕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게 보검을 보검되게 하는 사용법 첫 번째요, 그 다음 먼저 적장이 칼을 뽑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뽑는 것이었다. 그 칼의 사용법은 간단했지만 그 위력은 무시였다. 적장의 칼과 부딪치자 단번에 적장의 칼이 두 동강 나버렸다.

우리의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맹세하여 보장하셨고, 그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보검이 하사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어떤 말이 기적을 만들까? 롬10: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다.

시인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그게 "아멘"이다. 결코 침묵해서도 안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보장으로 되어 있다. 이 보장을 아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보장을 "아멘"하고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게 된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성, 박기호, 방지자, 김종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718) 228-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월드타운 치유센터/기도원

이제 멀리가실 필요없습니다. 한인타운 중심지에 있습니다. 병고침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신유의 은사로 각종 암병, 중풍, 우울증, 신경통, 당뇨가 치료되며 사망자들은 사망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됩니다. 자녀, 가정, 사업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월드타운 치유센터로 기도하러 오세요.



원장 이엘리사 목사



개인 기도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월드타운 치유센터 간증자들 성령의 강력한 병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엘리사 목사
323.496.2550
자궁암 말기, 저혈압
완전치유



제니 변
323.383.1917
마약, 도박중독, 우울증말기
완전치유
현재 주방봉사



김경수
213.248.7379
당뇨, 담석말기
완전치유



정영호 집사
213.364.4477
천식, 가래기침, 대상포진
완전치유



여호수아 변
818.288.3992
불면증, 시력이상W 비전,
무릎 관절염, 아토피
완전치유



이승호(다윗)
213.570.0818
우울증, 대인기피증
완전치유
현재 찬양사역 봉사



정민례
213.382.3258
우울증, 도박
완전치유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치유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365일 예배안내 오전 5시 30분 / 낮 11시 / 저녁 7시

각종시설 및 개인 기도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벌몬트+피코)
주소 1331 S. Vermont Ave, L.A, CA 90006 24시간 전화 213-382-3258 / 213-725-3007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지난 주에는 열바인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통곡기도회가 열렸다.

탈북자에 대해서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자주 듣고 접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했지만 막상 실제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육성을 통해 그 실상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래서 여러 북한 전문가들과 좋은 강사들이 있었지만 난 할 수 있는 한 탈북한 사람들의 간증에 귀기울였고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몇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첫째는 탈북자들 중에 의외로 배고픔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보다는 북한에서 나름대로 안락한 삶을 누리던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점이었다. 물론 강사 중에는 밤 한 번 배불리 먹어보자는 소원을 품고 탈북하신 분도 계셨다. 수용소에서 태어나 수용소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탈북한 분이셨다. 누군가 그렇게 수용소에서 사시는 동안 그나마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고 묻자 이 분은 매일 밥이 모자라 할땐 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밀고해서 그 사람의 밥까지 먹을 수 있었던 때가 그나마 즐거웠던 순간이었다고 고백하셨다. 못 먹는 사람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고백이었다.

그러나 그 분 외에 다른 분들은 북한에서 지위를 누리던 분들이었다. 김일성 대학 출신의 기자 분도 있었고 교수로 어머니와 평양에서 유복한 생활을 누렸던 자매도 있었다. 또 어떤 분은 평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양에서 안락한 지위를 누리며 오랫동안 마약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 나름대로 그곳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유를 위해 생사를 걸고 북한을 탈출했다고 말한다.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이나 그 후 중국을 떠도는 가운데 이들은 인간 이하의 온갖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마침내 자유의 품에 안겼다. 우리는 늘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한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서 비친 가족의 소중함이었다. 대부분 탈북자들의 간증 속에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었다. 탈북 과정의 위험 때문에 가족이 함께 탈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탈북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뒤

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었다. 북한 사회에서는 모두 다 사라지면 당장 들뜬이 나기 때문이다. 부득불 누군가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두고 온 가족들로 인한 아픔이 이들 모두에게서 진하게 느껴졌다. 두고 온 가족 이야기할 때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한 탈북자는 두고 온 어머니와 동생을 구해내기 위해 큰 돈을 써 가며 그들을 간신히 중국까지 오게 했지만 다시 불뿔러 북송되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아픔 때문에 더욱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들이 이제 다른 탈북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 헌신하고 있는 점이었다. 탈북 후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매는 그 수익으로 북한과 중국에 부모 없이 방황하는 꽃제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가 이미 수십 명에 달했다고 한다. 또 다른 분은 동상이 걸려 팔다리 없는 꽃제비를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한국으로 데려왔다고 한다. 자신들의 앞가림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이들을 보며 무익했던 죄수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한 오네시모 생각이 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오네시모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제자도와 정치

영어의 정치(politics)라는 말은 도시국가(polis)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시민을 위한 중요한 결정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정치(政治)에 대한 동양적 의미는 "바르게 함"(正)입니다. 무엇으로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회초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사(政事) 정(政) 자에는 회초리를 의미하는 동글월 문(文 혹은 父)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 회초리를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스릴 치(治)라는 글자는 정치의 목적을 말합니다. 치(治)는 물(水)과 '높은 장소' 혹은 '건축물'(臺)에 함해져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물(水)의 넘침이 가져오는 피해를 높은 장소에서 바라보면서 수습한다는 의미, 즉 '치수'(治水, irrigation)를 통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회초리로 바르게 한다는 말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회초리로만 정치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직장 과 군대와 기업과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정치는 모두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회초리를 휘두름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의 정치는 글로 하는 정치, 말로 소통하는 정치가 더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政)은 바를 정(正)과 글월 문(文)의 합체자로 창조적으로 일컬어집니다. 정치는 그러므로 물리적 강제력이 등장하기 전에 교화로, 소통으로, 말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이 더욱 거룩한 '말씀'이 되어 사람을 섬기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분입

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왕이신 성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정치가들은 다윗이 그리웠듯 백성과 소통하는 말씀의 정치를 하라고 부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유대의 왕은 이 말씀에 의해 정치를 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왕에게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예비돼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율법의 계명을 기초를 두고 있었습

니다. 얼마전 조국은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미국이나 조국이나 정치의 계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정치인이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명목상 기독교 타이틀만 가진 정치인이 진정한 제자도를 퇴색시킬까 걱정 됩니다.

우리의 제자도가 교회 내부용인지, 아니면 나의 직업의 영역에서도 필요한 것인가 되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치인, 말씀의 정치인을 위해 기도함이 우리의 사치가 아닐까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가 각자 직업의 영역에서도 제자로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 오류와 이단 (3)



신현국 목사
에벤셀리아대 총장

일성 교리를 함리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됐으나 삼위일체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 양태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시대에(창조시 성부로서, 율법을 주실 때 성자로서, 그리스도 승천 후 성령으로서), 다른 형태 또는 다른 양상으로 계시 하신다." (이단과 정통, Harold, Brown, p.161.)

여섯 번째, 이단은 배타적 구원론을 주장한다. 이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행16:31, 요3:16.5.24, 롬3:22, 갈2:16)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사55:1, 엠2:1.5.8)을 얻을 수 있다는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가르치며, 자신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집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단의 다섯 번째 특징은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거나 변형시킨다는 점이다. 그들은 단일신론을 주장(종교개혁 시대의 소시안 주의, 유니테리안 교회, 여호와의 증인과 등)하거나 양태론적 단일신론(사벨리우스주의, 김기동 등)을 주장한다. 성경적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각 독자적인 이름과 특성을 지닌 존재며(요6:27, 요20:17, 벰전1:2, 요1:18, 골1:15-17, 요20:28, 롬9:5, 고전2:10, 롬15:30, 고전2:11, 롬8:27), 세 독립된 실존으로 묘사되며(마 28:19, 엠 4:4-6, 행7:55, 마 3:16-17), 동시에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다.(신6:4, 고전8:46, 롬10:10)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주의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듯 현대의 아리우스적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파는 "하나님은 한분 밖에 없으며 그분의 합당한 이름은 여호와라"고 주장한다.

리셀은 "성경에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고 주장한다. 2대 교주인 러더퍼드는 "삼위일체론의 근원자는 사탄이라"고 말한다.(J.F. Rutherford, Let Be True, p.82.) 그는 요1:1를 근거로, 예수를 하나의 하나님(a god)으로 해석하고, 'a god'은 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천사를 지칭한다고 서술한다.(Rutherford, The Kingdom Is at Hand, p.49.)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성령을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도록 그 종들을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이라" 해석하며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엘로힘 하나님인 많은 영적 자녀들 중 첫 아들로 가르치는 몰몬교는 수 많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2대 교주 브리검 영은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지금은 신으로 승격한 사람"이라고 보며, 사람들도 결국은 신이 된다고 가르친다.(Brigham Young, Journal of Discourses 4, p.4.)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신격의 단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구원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완전구원은 실패로 돌아갔다. 원리강론에서는 "십자가에 의한 속죄가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인간의 창조본성을 완전히 복귀해 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대속으로 메시아로 감명하셨던 그의 목적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세계의 유사 기독교, 신현국,p.217.)

구원론은 그들이 주장하는 "깨달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교회는 인간이 만든 바벨탑이요, 또 종교는 죽은 것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기성교회는 종교요, 우리들은 복음이라"고 주장한다.(미혹자 이단들의 정체, 신현국, p.27.)

여호와의 증인파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상의 헌신적인 봉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구원의 수단을 첨가한다. 또한 이들은 제한된 인원만 즉 1914년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이 된 14만 4천명만 천사천국에 들어가며 영혼의 불멸을 얻게 된다는 주장으로도 유명하다.

1995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신천지의 구원론에 대해 "이세(이만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를 만나야 한다고 하며,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영생에 이르며, 요한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에게 올 자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천지는 이만희의 혈서로 만든 새 언약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계속)

제11차 1일신약통독

이번 노동절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뜻깊은 노동절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2년 9월 3일 (월) 오전 8시 (시간엄수)

장소 갓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909)983-0994

참가비 20불 (두 끼 식사 제공)

강사진 한영구 목사, 김동원 목사, 이희철 목사

교회 찾아오시는 길 (909)983-0994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온타리오 공항 근처 (D Street과 Allyn Ave 사거리)



마늘과 올리브 오일이

만났을 때...



웰빙 음식의 대표 주자, 마늘. 한국인은 김치나 소금 보다 마늘을 자주 먹는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하지만 마늘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섭취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마늘에 대한 궁금점들을 정리해 봤다.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줄어드나?

줄어드는 성분도 있지만 생성되는 것도 있다. 생마늘의 알릴설파이드는 효소(알리나제)에 의해 알리신으로 변하는데 열을 가하면 효소 활성도가 떨어져 알리신이 줄어든다. 열에 약한 수용성 비타민인 C와 B도 감소한다. 그러나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의 활성도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열을 가한 마늘은 생마늘에 비해 항산화 물질 활성도(150℃, 4시간)가 약 50배 높고, 폴리페놀(140℃, 2시간)과 플라보노이드(150℃, 1시간) 함량은 각각 약 7배, 약 16배 높다. 과당(140℃ 1시간) 함량도 생마늘에 비해 약 7배 높다. 구운 마늘에서 단맛이 나는 이유다.

하루 얼마나 먹어야 하나?

마늘 섭취 제한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 좀 많이 먹어도 수용성 성분이 많아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특별한 부작용 없이 마늘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결핍으로 피로를 잘 느끼고, 입맛이 없고, 동맥경화증이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마늘이 좋다. 마늘 보충제의 경우 성인은 하루에 마늘가루 1스푼, 마늘환(70%, 0.5g)은 10~15개, 마늘즙·농축액·진액·음료(약 97%, 80ml)는 1포(병)정도가 적당하다. 노약자는 성인의 절반, 어린이는 성인의 3분의 1을 섭취하면 된다.

마늘을 삼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

생마늘은 위벽을 자극하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을 내놓아 위벽을 헐게 하므로 위장병이 있거나 위가 약한 사람은 피해야 한다. 또 마늘에는 혈액 응고를 막는 성분이 들어 있어 와파린 등의 혈전용해제를 복용하고 있는 심장병 환자들이 마늘을 먹으면 지혈이 잘 안 된다. 지혈이 잘 안되므로 수술 1주일 전에는 삼가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혈전생성을 방지하는 은행물, 징코민, 오메가 3지방산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사람도 마늘을 섭취하면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냄새가 없는 마늘은 효능이 없나?

아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거나 숙성시키면 냄새를 유발하는 알리신, 스코르니딘 등의 황 화합물이 줄어든다. 반면 숙성시 간질환 및 암 예방, 항산화작용 등을 하는 S-아릴시스테인(SAC) 성분이 생성된다. 또 찬물에 4시간 정도 담가두면 특유의 맛과 냄새를 내는 알리신 성분이 줄어든다. 고기, 생선, 달걀, 치즈, 우유 등 단백질이 많은 음식, 파슬리와 함께 먹어도 냄새를 줄일 수 있다.

◇ 마늘의 효능

- 항암효과: 동물실험 결과 간암, 위암, 폐암, 전립선암 억제
- 항균효과: 알리신 1mg에 페니실린 15단위 상당의 살균효과
- 심장병 억제: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과 농도 낮추고, 혈관 내 혈액응고 방지
- 스테미너: 알리티아민 성분이 신진대사 촉진
- 노화방지: 활성 산소 및 체내 과산화 지방 생성 억제
- 근육증강: 크레아틴 성분이 근육 생성 촉진
- 피로회복: 알리티아민 성분이 피로 물질 분해
- 해독작용: 시스테인 메티오닌 성분이 해독 기능

올리브 오일

서양의 대표적인 장수 지역은 남부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사르데냐섬), 그리스(크레타섬) 등 지중해 연안. 이곳 주민이 오래 사는 첫째 이유로는 지중해식 식사가 꼽힌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식사 핵심은 올리브다. 올리브는 지중해 사람의 식탁에 거의 매끼 오른다. 온갖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다.

◇ 올리브 오일의 효능=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올리브유.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식용유와 다른 점이다. 지중해 사람들은 하루에 섭취하는 전체 열량의 40% 이상을 지방에서 얻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지방 애호가다. 그런데도 심장병 사망률은 미국인보다 훨씬 낮다. 지방의 대부분을 혈관 건강에 이로운 올리브 오일에서 얻기 때문이다. 올리브 오일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위궤양·위암의 원인 중 하나) 감염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자, 그렇다면 몸에 좋은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요리는 없을까? 답은 '예스(Yes)'. 이탈리아 남부지방의 마늘향이 물씬 풍기는 담백한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Aglio e Olio)"가 바로 그 답이다. 요리연구가 미셸 조 씨가 소개하는 "알리오 올리오" 간단 레시피를 한번 살펴 보자.



알리오 올리오(Aglio e Olio)

〈맛있는 재료〉

- 스파게티 반 파운드
- 올리브 오일 2큰술
- 마늘 10개
- 칠리 1큰술
- 화이트 와인 1/4컵
- 프레쉬 바질 1/4컵
- 파슬리 2큰술
- 버터 1큰술
- 소금과 후추 필요량

〈만들기〉

1. 스파게티 면은 포장지에 나와 있는 시간에 맞춰 삶은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올리브 오일을 발라 둔다.

2. 마늘은 편으로 썰어서 준비해 놓는다.
3. 달구어진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넣고 분량의 마늘을 중간불에 연갈색이 나도록 잘 볶아 준다.
4. 어느 정도 익은 마늘에 준비한 화이트 와인을 넣고 센불에 조리듯이 볶은 뒤 준비해 놓은 프레쉬 바질과 스파게티 면을 넣는다.
5. 여기서 기호에 따라 파마산 치즈를 넣어도 좋다.
6. 맛있게 볶아졌다 싶으면 소금, 후추, 파슬리를 넣어 간을 맞춘 뒤 완성한다.

정한나 기자



COVER STORY

남자의 자존심을 살리는 절대 패션, 슈트

디자인과 기능으로 벌이는 한판 승부

당당하게 연출하는 나만의 스타일

남자의 로망, 슈트에도 철학이 있다

“슈트도 철학이 있는 자가 입어야 멋이 난다.”

- 하루키의 에세이 <양복변천사> 中 -



골드핑거 테일러의 김병호 대표. 그는 40년째 맞춤 슈트를 만들고 있다.

웃은 후천적 피부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문명인은 옷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옷을 벗는다. 옷은 타자의 시선에 드러나는 제 신체를 감추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자기 안의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이중적 표상이기도 하다. 옛 우리 조상들은 '의식주(衣食住)'라고 하여 밤이나 집 보다 옷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옷장에 걸린 옷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같은 옷이 아니”라고. 옷장에 걸린 옷을 몸에 걸치고 밖으로 나갈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이 된다는 얘기가. 그런 점에서 옷차림이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개인의 의지와 소신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신사의 자존심, 슈트

뜨거운 남가주. 폭폭 찌는 여름이지만, 슈트를 입은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슈트는 날렵하면서도 굽직하게 떨어지는 선과 각이 너무 멋지다. 그래서 슈트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비즈니스 맨은 물론, 남다른 패션 감각을 지닌 남자라면 아무리 더워도 버릴 수 없는 패션 트렌드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그가 입고 있는 슈트”라고 했다. 흔히 슈트는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한다. 남자는 슈트를 입을 때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가. 슈트는 입을 사람의 철학과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매개체이기 때문. 정통 클래식 슈트는 크게 아메리칸 스타일, 브리티시 스타일, 이탈리아 스타일로 나뉜다. 실용주의적인 아메리칸 슈트는 어깨, 버튼, 바지 라인 등 최소한의 버튼과 장식 없는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연출한다. 반면, 브리티시 스타일은 군복을 기초로 만들어져 훨씬 입체적이다. 군복을 기초로, 인체의 움직임에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어깨는 높고 허리는 안으로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가장 우아하면서도 클래식하고 트렌디한 건 단연 이탈리아 스타일이다. 남성의 색시함, 본연의 라인 등을 최대한 살린 결과다. 몸에 좀 더 달라붙는 실루엣에 단추의 위치도 좀 더 높고 어깨선도 솟아있어 전체적으로 남성의 체형을 살리는 데 주력한 스타일이다.

이탈리아 장인이 말하는 슈트 잘 입는 법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옷 입을 때 자기 몸에 잘 맞춰 입는 것 보단 튀지 않고 무난하게 입는 경우가 많다. 아내가 골라주는 대로만 입는 경우도 많은 듯 하고... 제대로 맛을 낸 한국 남자를 보기 어려운 이유다.”

패션의 나라, 이탈리아의 슈트 장인 엔조 안젤리니의 말이다. 아쉽게도 한국인들 중에서 자신의 체형에 맞도록 멋지게 입는 남성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 남성들은 몸에 꼭 맞게 입기를 겁내고, 컬러도 블랙, 네이비, 그레이만 고집한다는 것. 물론 이게 베이식이지만, 때론 아이보리, 베이지, 하늘색 슈트도 입을 줄 알면 좋겠다고 그는 조언한다. 물론 매일 같은 색깔만 입는 것도 피해야 한다. 가령 화이트 셔츠만 입는 것. 이것보다 지루한 것도 없다.

전문가들은 한국 남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사이즈(size)’에 대한 이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자신에게 딱 맞는 적절한 슈트 사이즈를 몰라 자신의 몸을 풍성하게 감싸는 오버 사이즈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어깨가 항공모함처럼 큰 재킷을 걸쳐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한 느낌을 주기 십상이다. 재킷의 소매도 손등까지 닿아 전체 몸의 비율에 비해 팔만 유난히 긴 인상을 준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지는 땅에 닿을 만큼 너무 길게 입어 오히려 키가 작아 보이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놈의 옷장, 끝내주게 옷 못 입는 남성들을 위한 불친절한 해설서>의 저자 민희식 씨는 다음과 같은 ‘클래식 슈트 십계명’을 제안한다.

- ▷저렴한 기성복 슈트 열 벌보다 제대로 된 맞춤복 슈트 한 벌이 낫다.
- ▷소매 단추는 리얼 버튼이어야 한다. 리얼리티가 살아있어야 훌륭한 슈트다.
- ▷몸과 슈트 사이즈가 정확히 맞았을 때, 셔츠 소매는 재킷 밖으로 1.2~2cm, 셔츠 칼라를 재킷 밖으로 1cm 나온다.
- ▷구두를 벗었을 때 바지가 바닥에 끌려서는 안 된다. 바지 길이가 짧을수록 키가 커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 ▷드레스 셔츠는 화이트나 블루 두 가지 색상이 기본이다. 색깔 있는 셔츠를 입고 싶다면 핑크색만은 피하라.

▷넥타이 길이는 벨트라인을 절대 넘어서지 마라. 짧은 것은 용서가 돼도 긴 것은 용서가 안 된다. >넥타이와 포켓 스퀘어는 패턴과 컬러를 셋트로 맞추지 마라. 아침뉴스 앵커들이나 하는 것이다. >벨트와 구두 색깔은 통일해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때보다 열배는 더 세련돼 보인다. >예식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두는 브라운 옥스퍼드가 기본이다. >드레스 셔츠는 한여름에도 긴팔이 원칙이며, 속에 내의를 입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맞춤 슈트다 빠져들 수 밖에 없는 맞춤 슈트의 매력

기성복에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함, 내 몸에 꼭 맞는 슈트

전통과 장인정신이 빛낸 명품 맞춤이 곧 ‘고급’ 맞춤복 전성시대

“자신의 피부처럼 몸에 정확하게 맞춰 입어라” 이것이 슈트를 입는 첫째 원칙이다. 그래서 민희식 씨 역시 기성복 보다 맞춤 슈트를 강력 추천한다. 신체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해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진 슈트는 편안함은 물론, 시간이 갈수록 몸과 더욱 친숙해져 스타일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침체에도 자신의 개성을 강조한 일대일 맞춤 슈트를 찾는 남성들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늘고 있다. 남과 다른 나를 표현하고 개성있는 옷을 입고 싶다는 구매 욕구에서 시작된 트렌드에 따라 맞춤 슈트 시장이 호황을 맞았다.

<골드핑거 테일러> LA 한인 슈트 문화 이끄는 명품 중의 명품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골드핑거 테일러’는 목회자를 위한 20퍼센트 특별

리’는 옷을 좀 안다는 남성들 사이에서 서지 마라. 짧은 것은 용서가 돼도 긴 것은 용서가 안 된다. >넥타이와 포켓 스퀘어는 패턴과 컬러를 셋트로 맞추지 마라. 아침뉴스 앵커들이나 하는 것이다. >벨트와 구두 색깔은 통일해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때보다 열배는 더 세련돼 보인다. >예식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두는 브라운 옥스퍼드가 기본이다. >드레스 셔츠는 한여름에도 긴팔이 원칙이며, 속에 내의를 입지 않아야 한다.

김 대표는 맞춤 슈트의 장점에 대해 “엄정한 공정을 거쳐 몸에 편안하게 밀착되는 정교한 실루엣을 만들고, 한치의 오차 없이 체형을 완벽하게 커버한다”면서 “기성복은 못에 걸치는 것이지만 맞춤복은 입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한다. 개성과 품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40년 가까이 수백 수천 경우의 수에 따라 때와 장소, 사람 개개인에게 맞춤형 옷을 만들어 본 노하우는 기성복이 절대 따라올 수 없다. 언제 누구와 만날 때 입을 건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상담에 최선의 공을 들인다.

골드핑거 테일러는 가족 같은 고객들이 많다. 한 번 골드핑거 테일러의 옷 맛을 알면 아무리 비싼 최고급 기성복 브랜드로도 만족이 안 된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 좋은 일은 고객들이 만족스러워 할 때”라고 말한다.

품질혁신을 추구하는 골드핑거 테일러는 최상급 원단, 꼼꼼한 바느질, 합리적인 가격이 돋보인다. 김 대표는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꼭 한 번 고품격 맞춤양복을 입어 보길 바란다”고 맞춤양복의 장점을 피력했다. 현재 ‘골드핑거 테일러’에서는 목회자를 위한 20퍼센트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 원단(소재)과 필수 공정비용을 제외한 거품 비용을 최대한 줄였다. 오픈시간은 월~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소: 213) 386-5858
▷문의: 975 S. Vermont Ave. #102, LA(나성플라자 내)

천편일률적인 스타일? No! 나만을 위한 ‘잇 아이템(it item)’

기성복이나? 맞춤복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슈트 구입에 앞서 이 질문과 동시에 백화점 세일 전단을 뒤적인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기성복이 과연 좋은 선택인지를 말이다. 우선 기성복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신의 몸에 딱 맞게 맞추는 옷이 아닌 표준체형에 맞춰 이미 생산된 옷을 기성복이라고 한다. 기성복은 “ready-made”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어 몸에 맞게 골라 입는 옷을 말한다. 기성복은 대량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100명의 사람에게 90퍼센트 잘 맞도록 만드는 데 있지 내 몸에 100퍼센트 맞는 옷은 아니라는 얘기가. 중요한 건 내 체형이 기성복에 맞는 표준 체형인가 하는 점인데, 배가 많이 나왔거나 어깨가 좀 넓거나 하면 당연히 기성복은 맞지 않을 터. 이에 비해 “hand-made” 또는 “order-made”라고 하는 맞춤복은 개개인의 체형 특징을 고려해 제작된다. 정확한 젠치수를 바탕으로 옷 크기와 몸의 크기를 딱 맞도록 맞추고, 제각각 다른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표현해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무엇보다 크다.

정한나 기자



궁금했다! 기성 슈트와 맞춤 슈트의 차이점

맞춤 슈트	기성 슈트
자유자재로 원단(소재) 선택 가능	대부분 동일한 원단 사용
나만의 개성있는 디자인	획일적인 디자인
섬세한 스타일 연출 가능	천편일률적인 동일한 스타일
개인이 원하는 컬러 선택	동일한 컬러로 제작
내 체형에 꼭 맞는 맞춤 재단	표준체형에 맞춘 재단
비접착방식 심지 제작으로 오래 입고 세탁해도 뒤틀림이 없다	거의 접착방식으로 제작돼 오래 입고 세탁하다 보면 형태 변형이 오기 쉽다
손바느질 작업으로 어깨가 유연하고 내추럴한 느낌이 있다	기계 바느질로 어깨가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이 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증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스마트 월드

간강 홈종 전문점!

FUJITA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완전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올이온 실리콘! 자동차 핸들 커버 \$30

좋은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을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인메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사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선풍설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선풍설 A/C 냉장,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유익종 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종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Living water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미국 FDA세계 최초 승인
러시아 GOST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녹과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수질안전, 이온 활성수, 경제성 확보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반영구적 집안, 밖 100%사용
산업, 상수도, 발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co.kr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염, 윌빙염, 아재염 \$50.00
하이라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펌 \$80.00

반드시 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53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식재료 도·소매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참숯 (바베큐용)
각종 Tea (커피, 등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울림피과 놀란드 신한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방울머슴에서도 사들여 먹어줘야
내장비만 & 다이어트

현대의인 고지방인 비만 몸 속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배고픔이 없고 요요현상 또한 없이 위치가 줄어 소식행로 건강해집니다.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금문 때까지 치료)

양방/한방 두가지 치료를 병행하여 뇌기 자극적으로 연골관절을 생성하게 하여 뇌코틴을 찾는 것을 막음으로 담배를 끊게됩니다.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성경적 식이요법 제시하는 김갑선 박사 인터뷰

“사역자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역 펼친다”

9월 13일부터 선교사를 위한 건강캠프 개최

건강이 화두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는 일에 제약 받고, 심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드러눕게 된다. 어떻게 하면 한번뿐인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물음에 시원한 해답을 주는 건강 캠프가 있다. 바로 ‘현지사역 선교사를 위한 건강캠프’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Lollard 산장(LA에서 50마일 동쪽, 13762 Middle Fork Rd. Lytle Creek, CA 92358)에서 선교사 부부를 대상으로 열리기 때문이다. 이 캠프 주강사는 김갑선 박사다. 그의 강의는 이미 유명해 북미주에 수십만명이 그의 CD 강연을 듣고 도움을 얻었으며, 7천여 명이 진료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김 박사는 또 세크라멘토 지구 총선교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이기도 하다. 서울대 농대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토양미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M.Div.과정은 부산신신대에 밟았으며, 미국에 건너와 내추럴테라피와 한의학 공부를 한의사가 됐다. 그는 “현재 의사 진료 사역을 하느라 전적으로 떠맡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갑선 박사

또 웰빙식단, 발효식품, 기초건강, 성경에서 가르치는 식이요법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성경적 식이요법에 대해서 많은 강연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정해 놓은 음식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야채이다.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허락하신 것이 고기 섭취였다. 그 다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레위기 11장부터 14장까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았다.

우리 몸에 찌꺼기를 안 남기고, 깨끗하게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경적 식이요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다. 특히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되면 교인들도 달게 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병이 들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진다. 크리스천은 영과 육이 같이 건강해야 한다. 영이 건강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하는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 말씀을 잘 알지만,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서양 의학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인 식이요법을 배워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몸이 안좋다고 꼭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건강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자연식만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충분하다. 목회자들이 건강세미나를 통해서 눈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체적으로 식이요법 치료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

난치성 당뇨, 비만, 파킨슨 병 등을 음식으로 고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100% 음식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병의 치료에 적절한 재료를 골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내가 개발한 약을 제공한다.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의 병세가 호전됐다. 환자들이 보통 양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 되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긴장된다.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안되면 오는데 100% 낫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 환자들이 완치되거나 도움을 얻었다. 특히 당뇨와 혈압, 중풍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거의 완치됐다.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심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사실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불만족에서 오는 질환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과로가 문제다.

세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이 문제다. 조미료나 각종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음식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전부 환경과 음식이 원인이다. 사람들이 자동차에 조금 이상이 생기면 수리하고 3천 마일 타면 오일을 갈아 주는데, 자기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하고 신경쓰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실질을 안하는 것이 문제다. 사람들이 아프면 약부터 찾는데 아프기 전에 자기 몸 관리부터 해야한다.

문의: 530-921-3663, 213-747-0168, 213-505-7067 토마스 맥 기자

8개월 영어클래스 무료로 배워볼까?

다양한 전문 교육으로 인재 양성하는 LA ORT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한인 담당관 그레이스 이 씨.

1880년에 유대계 이민자들에 의해 설립된 LA의 대표적인 비영리 사회교육기관으로 세계 60여 개국에 900여 학교를 두고 있는 LA ORT College가 8개월 간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남가주에서는 개교 후 가장 큰 직업 대학 중의 하나로 성장한 LA ORT는 현재 최고의 교육 시설을完비한 대학으로, 뉴욕에 두 캠퍼스가 있고 남가주에는 월터킬의 LA 메인 캠퍼스와 밸리에 2곳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LA ORT의 가장 큰 특징은 무료 교육이다. LA ORT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영주권자 이상의 저소득층은 16개월 코스의 영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6단계로 나누어 기초부터 고급 영어까지 가르친다. 문법과 어휘, 생활영어, 고급회화에 이르기까지 매주 24시간(하루 4시간)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 중급자 이상은 종일 영어로만 진행되는 어드밴스 클래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한 클래스는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어 집중도가 높다.

학교에서는 영어 외에도 다채로운 직업 교육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수업이 진행되는 분야는 그래픽 미디어, 어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일반 사무직 및 비서직, 메디컬 어시스턴트, 약사 보조직, 데스크탑 퍼블리싱 등 총 10개 분야로 여러 가지 훈련 코스가 있다.

특히 컴퓨터 병원 업무 클래스에서는 병원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교

육한다. 또 메디컬 빌딩,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전문 행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다.

LA ORT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높은 취업률이다. 현재 졸업생 평균 취업률은 90%-95%이다. 불경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난 2010년에도 80%-85%였을 정도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이태희 씨는 “메디컬 오피스와 관련해 공부를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인턴십을 거쳐 취직했다”며 “다른 학교에서는 병원 시스템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적었는데, ORT를 통해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다. 가격도 다른 학교보다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의 장학제도도 풍부하게 마련됐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원금뿐 아니라 학교를 세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도 꾸준히 장학금을 주고 있다. 한인 담당관 그레이스 이씨는 “여러 이민자 중 한인들의 열성과 교육 성취도가 가장 높다”면서 “그동안 정부지원 비영리 사회교육에 다소 소외됐던 한인들에게 풍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클래스는 오전, 오후, 저녁 시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유학생들을 위한 입학허가서 I-20도 발행하고 있다. 오전 8시 30분부터 3시까지 예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문의: 213-703-6863, 323-966-5444 토마스 맥 기자

세계의료선교회, 무료 건강검진 매주 토요일

혈액검사, 종합초음파검진, 골다공증 검진 등 실시

세계의료선교회(김인철 목사)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종합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진료과목은 종합혈액 검사(8시간 금식필요), 종합초음파 검진, 골다공증 검진, 무료양한방 검진, 무료치과 검진, 무료적추신경진료, 무료유방

암검사(예약필수), 무료자궁암검사(예약필수) 등이다. 또 사랑의안경 나누기를 통해 무료로 돋보기를 나누어 준다.

주소: 16603 San Fernando Mission Blvd. Granada Hills, CA 91344
문의: 818-488-1182, 818-621-4256 토마스 맥 기자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통신강자!

요금은 줄고

혜택은 늘고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
\$9.99
첫 3개월만, 이후 \$34.99/월

마이코리아넘버™
한국 070번호 제공
아이토크글로벌
휴대전화로 국제전화
500분 무료

행사기간 2012년 8월 31일 까지

대한민국대표팀
금메달 13개 획득 축하 이벤트!
지금 가입하시면 고객 여러분께
\$13 드립니다.

365일 한국어 상담



	iTalkBB	AT&T	Verizon
플랜	글로벌 플랜	U-Verse Voice Unlimited Plan	Freedom Essentials
월요금	\$9.99*	\$35	\$49.99
미국내 로컬, 장거리 무제한	✓	✓	✓
한국 포함 27개국 유선전화 무제한	✓	X	X
한국 전화번호	070 번호 제공	X	X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월 500분	X	X

[30%]
[환불 보장]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새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 할인 이벤트 - 프로모션 기간 첫 3개월을 포함해 총 15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 한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69.99의 약탈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받은 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올림픽 이벤트는 행사기간 내 15개월 계약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 한하며, 프로모션은 9월 30일 이후 적용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혜택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넘버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의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인마트 내 매장 보유하고 계산본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동부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환영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대신에 전자로만 연락합니다.

SUPER STORE

감사합니다.

미국 전체 에쿠스 판매 **1위**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1위**
 2012년 서부지역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1위**

8월 특별 세일

돈 한푼 없이 첫달지 할부금도 안내고 디파짓없이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차와 선물, 혜택을 그냥 드립니다.
 등록 가져 가세요.

\$0 Down Payment | **\$0** First Payment | **\$0** Security Deposit



2012 NEW EQUUS

MSRP \$59,650 (STK:045620)
 RESIDUAL \$25,650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REBATE

\$635 + TAX
사진 설명

2012 NEW GENESIS 3.8L

MSRP \$35,260 (STK:193210)
 RESIDUAL \$16,572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REBATE



\$357 + TAX

2013 NEW SONATA GLS

MSRP \$22,010 (STK:511730)
 RESIDUAL \$12,105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ECO TRADE

\$212 + TAX



8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8월1일~31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8월 한달간
 무이자(0%)에
\$1000을 더 드립니다.

*2012년 소나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한함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Customer Care
 제니 김
 310.749.7599



Sales
 매튜 김
 714.797.3571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